

# 글로벌 품질강국을 위하여...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11년 12월 13일 COEX에서 개최



▲ COEX에서 개최된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장면.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지난해 12월 13일 COEX 오디토리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허경 기술표준원장과 수상기업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품질경쟁력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애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속적 품질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원가경쟁력을 가진 개발도상국과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선진국 사이에 중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수단이기도 하다.

## 김명준 우리산업(주) 대표 금탑산업훈장, (주)성우하이텍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이러한 품질경영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와 유공단체를 발굴·표창하고,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

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품질강국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시작한 행사이다.

이번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유공자 부문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김명준 우리산업(주) 대표가 수상하였는데,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자동차부품을 제조해오면서 품질혁신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수출시장을 스스로 개척하여 매년 30% 이상 매출이 신장하는 등 해외에서 품질로 인정받는 자동차부품 강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심재철 LS엠트론(주) 대표이사, 이계재 한국조폐공사 부사장 2명이 수상했으며 품질유공자 부문에서 총 81명이 수상하였다.

품질유공 단체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 (주)성우하이텍을 포함한 17개 단체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30개 단체가 수상하였다. (주)성우하이텍은 2009년, 2010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주고객사인 현대, 기아자동차로부터는 최고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와 함께 최우수 점수로 평가를 받았다. Global GM으로부터는 3년 연속 '올해의 협력사상'을 수상하였고 최근 3년간 매출액, 경상이익 3배 이상 달성, 불량검출능력이 향상되어 납입(반송)품 불량률 3년 연속 0ppm을 유지하고 있다.

### 우수분임조 선발과정에 자유형식 부문 신설

생산현장 품질혁신의 우수성을 겨룬 '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15개 지역예선에 총 609개 팀이 참가하였고, 254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였다.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분임조로 입상한 기아자동차(주) 태백산맥 분임조 외에도 82팀이 금메달, 83팀이 은메달, 89팀이 동메달을 받았다.

또한, 산업현장의 건전한 근로풍토 조성을 위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경영활동에 헌신하여 귀감이 되는 모범 근로자 30명이 올해의 품질명장으로 지정돼 품질명장패를 수여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시장이 열광하는 일류 명품 창출로 품질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산업인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에는 우수분임조 선발과정에서 자유형식(free style) 부문을 신설하여 분임조 활동을 비롯한 현장의 소집단 개선활동 우수사례 발굴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업의 품질활동을 수행하는 품질분임조들과 명장들이 무역 1조 달력을 실현하는 품질강국의 대표 주자라는 자긍심 고취에도 힘썼다. **183**



▲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유공 단체부문 수상자들의 모습.